

대기업의 양계업 참여 과연 옳은 것인가?

-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우는 꼴 -

정부는 '농업경쟁력 강화 방안'으로 국가 경쟁력강화 차원에서 대기업의 축산업 진입 규제를 철폐함을 발표하였다. 이는 친환경으로 산업으로 발전시키는데는 영세적인 축산 규모로는 한계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본인은 산란계 농장을 운영하는 농가로서 산란계와 접목하여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해본다.

우선 국내의 산란계에 종사하는 농가수는 1,711가구의 5,900만수(평균사육수 34,581수)이며, 참고로 육계농가당 종사하는 농가수는 1,255가구의 5,450만수(평균사육수 43,410수)로 국내시장은 포화된 상태이다.

성장하는 시장형태가 아닌 성숙된 시장 형태이며, 나눠 먹기식의 시장형태를 갖추고 있다. 또한 생란시장이 88%차지하고 있으며 가공시장이 12%를 차지하고 있다.

선진국의 미국, 일본의 경우 액란 등의 가공란 소비가 시장 소비에 있어 40%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는 계란의 소비촉진을 증대시키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 즉 국내의 생란 소비형태에서 대기업의 진출은 시장경쟁만 악화시키며 생산의 공급과잉에 따른 생산자의 혼란과 손실만을 발생시킬 수 있다.

미국의 경우 1998년도 스미스 필드(Smith

field)사의 양돈업 참여로 미국양돈계가 사상최고의 폭락을 자처한 바 있다. 100파운드기준 생산비가 45달러에서 시세는 38%의 17달러까지 폭락, 최악의 시장악화 현상을 자처하였으며, 이는 즉각적으로 양계업계의 현실로 받아들여 커다란 교훈으로 이를 방지한 바 있다.

일본의 경우 이세농장이 8백만수를 경영함에 따라 일본 양계업계의 소규모 농가는 경쟁력에 있어 도태됨에 따라 5만수 이상의 농가가 80%를 차지하고 있다. 즉, 대기업의 시장 참여로 인해 국내 소규모 농가의 자멸은 불 보듯 뻔한 일이다. 대한민국 양계업은 영세농이며 현 50세 이후의 연령층이 양계업의 기초를 다졌고 2000년 이후 본격적으로 자동화시설과 친환경에 관심을 갖게 되었으며 그들의 2세들이 축산을 전공하고 참여하는 형태로 진행되고 있다.



홍 성 학

계림농장 대표



또한 최근들어 정부의 친환경 정책을 받아들여 2007년 3월 시작된 친환경인증에 2008년 산란계 92,000톤, 육계 20,000톤이 참여하였고 2008년 5월 시작한 HACCP제도 또한 산란계농가 38농가 육계가 26농가가 적극 참여하고 있으며 현재도 이를 받기 위하여 각고의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대한민국의 채란인들 이라면 국민이 요구하는 친환경 정책에 대하여 반대할 특별한 이유는 없다. 그런데 정부는 이를 무시한 채 대기업이 살길 인것 처럼 유도하는 것은 성급한 판단이 아닐 수 없다.

축산은 전문성과 사랑과 정열이 있어야 한다. 오랜 경험이 큰 재산이고 또한 닭에 대한 사랑과 열정이 있어야 동물도 그에 보답하는 것을 알고 있다. 현 국내 대기업의 참여는 외국과는 다를 수 있다. 우선 유통망을 갖고 있음에 따라 시장점유율을 확보할 것이며 이는 농가와의 수직계열, 즉

종속관계로 변화될 것이며 끝없는 확장으로 5만 수 이하의 소규모 농가는 분명 사라지게 될 것이다. 대표적인 예가 현재 국내의 P사의 경우 2008년 500억을 초과하였다.

과연 이들이 국내 양계업에 있어 친환경에 큰 공헌을 했는지, 조직적인 유통망을 점유한 자사의 이익만 챙기지는 않았는지 반문해 볼 필요가 있다. 또한 농가와의 거래에 있어 어떤 모습이었는가! 협력관계인가 종속관계인가 분명히 나름대로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

즉, 국내의 채란시장은 유통에 주권을 가진자가 이끌어 가는 대로 따를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이우인즉 대형마트가 빅3(E,H,L)사가 국내의 계란시장의 20%를 점유하고 있으며, 대형수퍼마켓(SSM) 형태의 점유율이 13%, 식자재관련이 29%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에 대한 대안을 제시 해 보고자 한다. 첫째, 세계적으로 가금산업이 발달된 독일의 경



우 대기업들이 생산에 참여하지 않고 대형유통업체가 참여, 생산자간 계약 체결로 소비자들에게 다가선다. 또한 인증제를 활성화하여 민간 인증단체(예:BCS)가 관리감독 한다.

국내의 방안도 이를 바탕으로 한 대기업이 생산에 참여하지 않고 가공 및 정부의 협조하에 대형유통업체와 협력하여 직거래 시장을 활성화하는 방안과 선진국의 40% 난가공 틀을 대기업이 참여하여 완전식품인 계란 소비를 증진하는 방안이다.

둘째, 국내의 한해 축산전문 인력만 30개 대학에서 1,600명의 고급인력이 배출되고 있다. 이는 축산 2세대들의 참여가 높아지고 있다는 증거이다. 따라서 이들을 이용한 보다 체계화된 교육과 전문인력을 양성하여 선진국의 견학 등 모범적인 사례를 받아들여 우리나라에 맞는 친환경을 개발하고 난가공 연구를 통한 정부의 협조하에 수출 경쟁력을 유도하는 방안이다.

셋째 최고의 전문가를 통한 경쟁력 강화이다. 이 분야의 전문가들이 국내에도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축산대학이 그 예이다. 이들의 연구진을 통한 보다 확실한 정보를 습득하여 이를 토대로 대한민국 양계업을 발전시키는 방안이다.

일본의 양계업이 우리나라에 비해 20~30년 앞

섰다고 한다. 계란 소비량에 있어서도 우리의 30%를 앞서고 있다. 대물림으로 이어져 가고 있다. 왜일까? 이유는 무엇인가?

농장의 보다 체계적인 생산방식과 농장내의 가공공장까지 허용함에 따라 채란 선진국의 모범적인 면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거꾸로 지금의 엔고화 시대에서 우리도 가공사업 등을 지원해준다면 일본에 수출해보고 싶은 것이 본인의 절실한 마음이다.

복지국가란 경제가 성장될수록 먹거리의 안전성이 더욱 중요한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다. 또한 잘사는 나라는 모두가 다 같이 행복해야 된다 생각한다. 우리 채란인들은 신이 준 '완전식품 계란'을 생산함에 있어 자부심을 갖고 국민 건강에 기여해온 것은 확실한 사실이다. UR, FTA, AI 등 어렵고 힘든 시기를 거쳐 소나무처럼 꺾꽂히게 지내왔으며, 배운 것이 채란이라 하늘이 준 사업이려니 생각하고 감사하게 양계업에만 몰두해 왔다

왜 우리도 할 수 있는 것을 대기업에게 빼앗긴단 말인가? 배는 고팠지만 웃을 수 있었고 닭장에 들어가면 이놈들이 반갑고 즐거웠는데 왜 우리의 행복과 생존권을 빼앗으려하는가! 부모가 돼서 열심히 공부하는 아이에게 책을 사주지는 못할망정 학교를 그만두라고 해서 되겠는가!

채란시장은 신규시장도 아니고 벤처사업도 아니다. 따라서 정부의 안정적이고 위생적인 방안으로 이끌어가는 것은 우리 모두가 찬성한다. 물고기가 물을 만나 거슬러 올라감과 같이 정부의 현 양계업을 존중하는 규정 내에서 좋은 정책을 제시하면 우리는 그에 따를 준비가 되어 있다.

잘못하면 교각살우(矯角殺牛) '소뿔 잡으려다 소 잡는 꼴', '빈대 잡으려다 초가산간 다 태우는 꼴'이 되지 않을까 심히 염려스럽다. **양계**